

# 시·군 문화·관광사업 투자심사서 대거 ‘제동’

전남도, 순천 팔마야구장 등 9개 ‘재검토’

37개 사업 중 19개는 축소 등 조건부 승인

전남지역 일선 시·군에서 추진 중인 문화·관광 관련 사업들이 전남도의 투자 심사에서 대거 제동이 걸렸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50억 이상을 필요로 하는 16개 시·군 33개 사업과 5억 이상 행사성 사업 등 모두 37개 사업에 대한 2차 투·융자 심사결과, 9개 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은 9개(24.3%)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단서조항과 함께 조건부 승인됐다.

재검토 사업은 ▲목포 가톨릭성지 관광자원화(70억원) ▲여수 순양원 목사 선양 및 유적지 조성(130억원) ▲순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52억원) ▲순천 팔마야구장 건립(136억

원) ▲팔마 국민체육센터 건립(99억원) ▲순천 응계산 치유의 숲 조성(200억원) ▲보성 비봉산 농어촌 테마공원(170억원) ▲여수 마칭(관악) 페스티벌(5억원) 등이다.

목포 가톨릭성지 관광자원화는 재원 대책이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순양원 목사 유적지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순천 팔마야구장은 투·융자에 앞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팔마국민체육센터는 중복 투자될 수 있는 만큼 시설수요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응계산 치유의 숲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시비 부담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원시림 보존 등 산림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보성 비봉 농어촌테마

공원은 인근 공동생태관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만큼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테마를 우선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장성군이 제출한 총사업비 287억원 규모의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비롯해 ▲장흥 목재 전문 산업화단지 조성(230억원) ▲목포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202억원)

▲신안 문화예술회관 건립(200억원) ▲화순 운주 관광지 조성(172억원) ▲고흥 도화 하수관거 정비(108억원) ▲당양 국민체육센터 건립(80억원) 등 19건은 사업 축소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투융자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조건을 강화한 정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며 “투·융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효성도 좋지만 기본계획을 꼼꼼하게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용역비 10억

본량·진원 외곽순환도로 내년 착공 예산

## 산자부·국토부 “적극 검토”

### 새누리 공약실천위 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7대 공약 사업 중 일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박근혜 대통령 지역 대선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사업’ 용역비 1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전날 2차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별 대선공약 추진 우선 순위 확정 및 공약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재 광주시당위원장은 “각 부처에 단기·중기·장기별 지역 공약 실천도드미를 내달 20일까지 작성해 옮을 것을 주문했다”며 “지역공약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를 참석시킨 가운데 구체적인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실시설계가 끝난 본량·진원 간 광주 외곽순환도로

(제3순환도로·16.5km 4차로)를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았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일부 구간(광주~해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시가 별도로 요구한 디지털콘텐츠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적극 심의중이며, 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체험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조성부지 매입비 50억원을 내년까지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각 부처에 단기·중기·장기별 지역 공약 실천도드미를 내달 20일까지 작성해 옮을 것을 주문했다”며 “지역공약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를 참석시킨 가운데 구체적인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31일 오후 적조 경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시 중화리 중화마을 앞 해상에서 해경이 가두리 양식장으로 유입되는 유해성 적조를 막기 위해 방제작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도도 적조 양식장 어류 방류·수매 요구

### 전남도의회는 황토살포 촉구

전남도가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황토 살포 대신, 양식장 물고기를 풀어주는 방류를 선택한 가운데 경남도도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의 폐사를 막기 위해 어린 고기는 양식장에서 방류하고 다 자란 성어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를 전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도는 적조경보가 내려진 지난 25일 오후 도비 4000만원을 들여 남해군 연안에서 양식하던 참돔 치어 10만 마리를 쳐어 방류한 바 있다.

성어 수매도 정부가 방침을 확정하면 어민들이 원할 때만 시행되고, 수매가는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참돔의 경우 활어 시가는 kg당 1

해수부에 공문으로도 전달했다.

어린 고기가 양식장 안에서 죽도록 놔두기보다 방류하자는 제안에 해수부는 우려 등 포식성이 강한 어종에 잡아먹히는 등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양식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습성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경남도는 적조경보가 내려진 지난

25일 오후 도비 4000만원을 들여 남해군 연안에서 양식하던 참돔 치어 10만 마리를 쳐어 방류한 바 있다.

성어 수매도 정부가 방침을 확정하면 어민들이 원할 때만 시행되고, 수매가는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참돔의 경우 활어 시가는 kg당 1

만5000원 정도지만 수매가는 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수매가의 5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응자, 20%는 어가 차부답이다. 어가 당 수매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어가당 예산 지원액은 2500만원에 불과하다.

양식 어류 수매는 2002년 한 차례 시도된 적이 있으며, 수매한 어류는 냉동상태로 일단 보관된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3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황토 살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전국  
점령

점령